

단사섬도 0.5 dtex 나일론 극세 섬유 - 도레이

도레이(주)는 착용감과 피부감촉이 우수한 소프트함을 가진 나일론 극세 섬유 [MICROMAFIN]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미 대기업 어패럴 전용으로 4 월부터 출하하고 있으며, 팬티스타킹과 이너웨어 용도를 중심으로 초년도 25 ton, 3 년 후 100 ton 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MICROMAFIN]

MICROMAFIN 은 혁신적인 제조설비의 개발 및 도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단사섬도 0.5 dtex 수준을 실현한 나일론 극세 섬유이다. [하이멀티 사]라고 불리우는 단사섬도 1.0 dtex 수준의 나일론 극세 섬유는, 이미 시장에서 폭넓게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1.0 dtex 를 더욱 하회하는 세섬도화는 폴리에스터와 비교해 제조시 실의 길이방향에서 균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고분자 용융시 열열화가 크며, 제조시 난이도가 높아, 실용화가 힘들다.

도레이에서는 극한의 제사기술 추구를 통해, 실의 길이방향에서 균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폴리머의 열열화를 극한까지 억제하여, 안정한 나일론 극세 섬유의 양산에 성공하였다.

단사섬도를 기존의 나일론 극세 섬유보다도 한층 가늘게 함으로써 나일론 본래의 유연함과 함께 새로운 촉감을 실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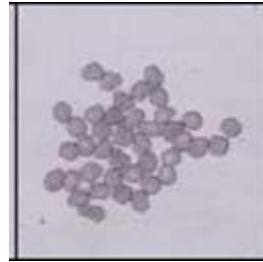
[계속 만지고 싶은 잊을 수 없는 감촉]을 컨셉으로 개발한 새로운 원사는 기존의 나일론 극세 섬유와는 달리 더욱더 섬세해서 피부촉감과 같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이 특징이다.

소프트함이나 드레이프성에 있어서도, 우아하고 아름다워 고급품의 촉감과 외관을 연출할 수 있어 보다 섬세한 제품기획이 가능하다.

또, 가공처리한 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성하는 단사섬도가 작아, 치밀한 원단구조가 가능하고, 섬유내에 많은 공기층을 함유할 수 있어, 얇으면서 따뜻한 소재의 제품기획도 가능하게 되었다.



MICROMAFIN™
(56T-98F 가공사)



기존 나일론
(56T-40F 가공사)

<사 단면 확대사진>



MICROMAFIN™ 기존 나일론
(56T-98F 가공사) (56T-40F 가공사)

<드레이프성 비교>

■ 상품명 : MICROMAFIN™

① 특징

- 단사섬도 0.5 dtex 수준의 나일론 극세 섬유에 의해 섬세한 피부감촉과 부드러운 촉감. 높은 소프트성과 드레이프성
- 가공처리한 경우 치밀한 원단구조에 의한 보온성을 가짐

- 나일론 6, 나일론 66 두 종류 타입이 있으며, 섬도 · 필라멘트수는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함.

② 판매계획

- 판매개시 : 2011 년 4 월
- 판매계획 : 초년도(2011 년) 25 ton, 3 년후(2013 년) 100 ton